

기 관	컨슈머인사이트	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문 의	김민화 연구위원	연 락 처	02) 6004-7643
배 포 일	2025년 8월 14일(목) 배포	매 수	총 4매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모든 콘텐츠(문서, 분석 내용, 도표 등)에 대한 저작권은 (주)컨슈머인사이트에 있으며, 언론사의 기사 작성 목적에 한하여 인용 또는 보도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모든 형태의 복제, 배포, 게시, 전시, 전송, 2차적 활용 등은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.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소비자 10명 중 7명, '여가비 줄이거나 현재 수준 동결'

컨슈머인사이트 '여가·문화·체육 주례 조사' 리포트 ①여가비용 지출 추이

- '22년 이후 여가비 지출동향·의향 동반 하락
- '비슷하다'도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
- 20대 여성 비교적 양호하나 모든 계층에 타격
- 40대·자영업·저소득층·자녀아동기가 특히 심해
- 미래 지출심리 더 냉각...여가산업 위축 불가피

<리포트 순서>

- ① 여가비 지출 추이
- ② 관심 높아진 활동(스포츠 관람)
- ③ 스포츠 관람 핫이슈(프로 야구)

*리포트 순서는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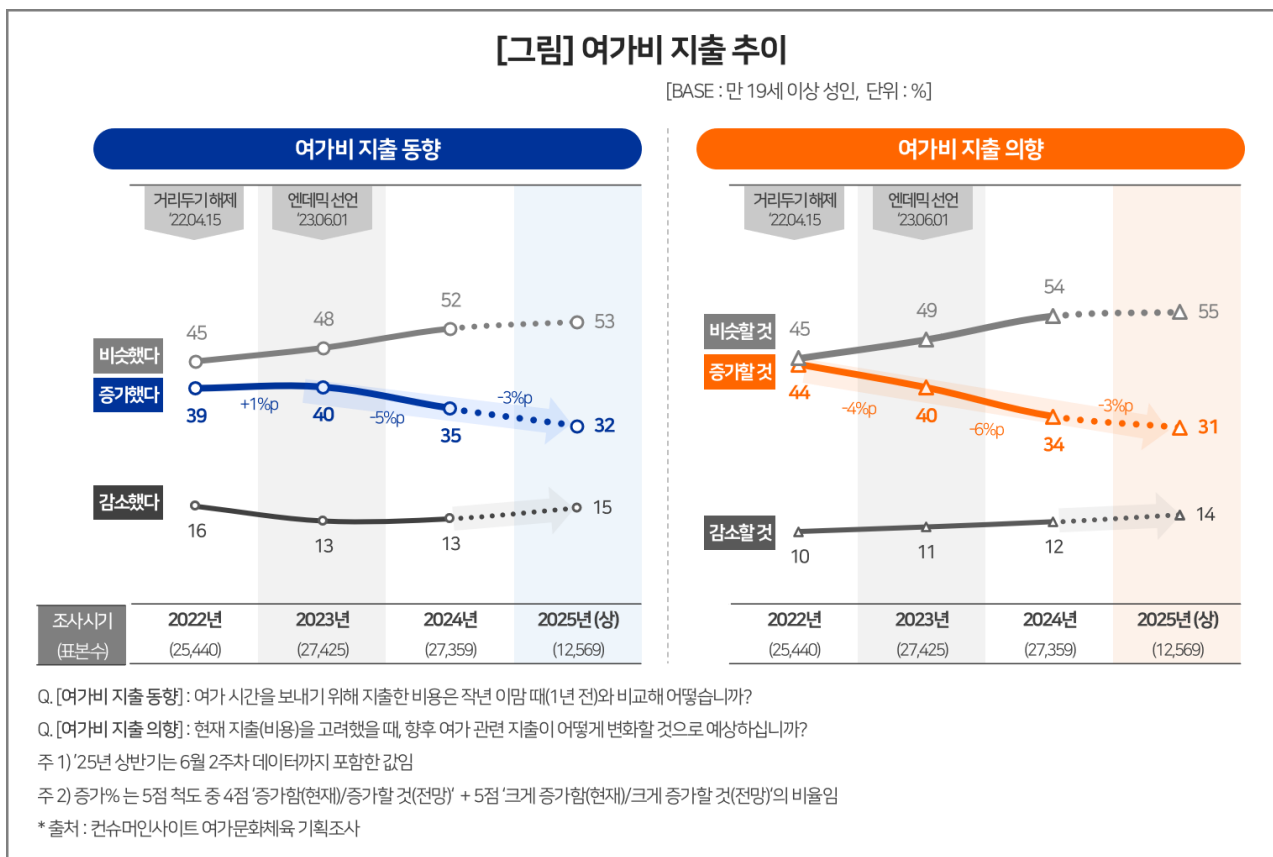
○ 우리나라 소비자의 여가비 지출과 지출의향이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. 전통적인 여가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, 자영업자뿐 아니라 비교적 양호했던 40대, 자녀 아동기가 가구까지 예외 없이 지출 심리가 얼어붙었다. 10명 중 7명이 여가비를 더 줄이거나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생각이라고 했으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모두 축소한 셈이다.

□ 여행·여가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10월 기획 조사로 시작한 '여가·문화·체육 주례조사(19세 이상 성인 매주 500명, 연간 2만6000명 대상)'에서 우리 국민의 여가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묻고 있다. 이 리포트는 '22년 이후 4년간('25년은 상반기)의 조사를 토대로 여가비 지출동향과 지출의향을 비교한 결과다. 여가는 '일(집안일 포함)이나 학업, 출퇴근, 일상적 식사 및 수면을 제외한 활동'으로 정의했다.

□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www.bigdata-culture.kr에서도 공개되고 있다.

■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70%가 '감소'

○ '25년 상반기(6월 2주까지)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여가비용 지출이 '증가했다'는 응답(지출동향)은 32%로 3년 전('22년 39%)보다 7%p 낮아졌다[그림]. 반면 '비슷했다'는 45%에서 53%로 8%p 늘었고, '감소했다'는 16%에서 15%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. 하지만 '22년 1월~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.9% 상승(통계청)했음을 고려하면 '비슷했다'는 응답도 실질적으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.



○ 앞으로의 지출 전망도 판박이다. '증가할 것'(지출 의향)은 31%로 '22년 대비 13%p 하락했고 '비슷할 것'과 '감소할 것'은 각각 10%p, 4%p 늘었다. 즉, 10명 중 7명(69%)이 여가비를 줄이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생각이다. 특히 올해는 6월 2주까지의 집계임에도 전년 대비 3%p씩 하락했다.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두 지표 모두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.

○ 연령대별로는 20대(19~29세, 43%·34%)와 30대(36%·32%)가 비교적 높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했다[첨부]. 여성(35%·33%)은 남성(29%·30%)보다 높았는데 특히 20대 여성(49%·37%)이 두드러지게 높았다.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여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

가운데 그나마 청년층, 특히 여성의 여가 소비 활성화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. 가구 월소득 '700만원 이상'과 '300만원 미만'의 지출동향(33%·30%) 차이는 3%p로 크지 않았으나, 지출의향(35%·25%) 차이는 10%p로 커졌다. 즉, 고소득층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경향이 있지만, 저소득층은 미래 여가비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다.

○ 직업별로는 경영·관리·전문직(35%·39%)과 사무직(35%·35%)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자영업(25%·24%)은 유독 낮았다. 특히 자영업자는 두 지표 모두 가구월소득 300만원 미만 계층(30%·25%)에도 못 미쳤다. 코로나 이후 장기 불황의 여파가 '자영업의 위기'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.

■ 여행·문화·레저 산업 전반 악영향 우려

○ '22년 이후 여가비 지출동향과 지출의향은 모든 시기, 모든 계층을 통틀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. 특히 40대(-10%p, -16%p), 자녀아동기(-11%p, -16%p)의 하락 폭이 유난히 컸던 점이 주목된다. 경제활동의 허리이자 다음 세대 양육을 책임진 핵심 계층의 삶의 질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. 지출동향 하락(-7%p)에 비해 지출의향은 더 크게 하락(-13%p)해 미래의 위축 가능성이 더 높은 점도 문제다.

○ 여가비 지출 위축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. 장기간의 고물가로 지갑은 얇아졌고, 여가 형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동영상·게임 등 비대면 활동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. 전통적인 여행·문화·레저 산업에 장기적 수요 공백이 우려된다. 계층별 여가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.

=====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만 19~69세 남녀 500명(연간 2만6000명 조사)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'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'를 바탕으로 한다. 여가에 대한 관심과 경험, 만족도 등 여가·문화·예술·스포츠 활동 전반에 대해 주 단위로 자료를 수집해 국민 여가생활의 현황과 추이 변화를 포착, 분석할 수 있다.

For-more-Information

김민화 연구위원/Ph.D	kimmh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43
이제성 책임연구위원/Ph.D	leejs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31

별첨

[첨부]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여가비 지출 동향 및 의향 추이

구분		여가비 지출동향 (%증가했다)			증감 (%p)	여가비 지출의향 (%증가할 것)			증감 (%p)	
		22년	25년(상)	25년(상) -22년		22년	25년(상)	25년(상) -22년		
(사례수)		(25,440)	(12,569)			(25,440)	(12,569)			
전체		39	32	-7		44	31	-13		
성별	남성	37	29	-8		43	30	-13		
	여성	41	35	-6		46	33	-13		
연령	19~29세	48	43	-5		43	34	-9		
	30대	43	36	-7		44	32	-12		
	40대	40	30	-10		46	30	-16		
	50대	35	28	-7		44	30	-14		
	60대 이상	32	26	-6		44	32	-9		
성별· 연령대별	남 19~29세	43	38	-7		40	32	-8		
	남 30대	41	34	-7		43	32	-11		
	남 40대	39	28	-9		44	28	-12		
	남 50대	34	24	-10		43	27	-9		
	남 60대 이상	31	24	-7		44	33	-7		
	여 19~29세	53	49	-4		47	37	-10		
	여 30대	44	38	-6		46	31	-15		
	여 40대	42	33	-11		48	33	-15		
	여 50대	37	31	-6		45	33	-12		
직업	여 60대 이상	33	28	-5		45	31	-14		
	자영업	35	25	-10		42	24	-18		
	판매·서비스직	39	32	-7		41	31	-10		
	기능·숙련·일반직업직	37	28	-11		41	29	-12		
	사무·기술직	43	35	-8		48	35	-13		
	경영·관리·전문직	39	35	-4		50	39	-11		
	전업주부	37	29	-8		44	28	-16		
	대학·대학원생	51	43	-8		45	31	-14		
라이프 스타이지	기타·무직	34	28	-6		40	30	-16		
	미혼·비혼	45	38	-7		43	32	-11		
	신혼기	36	29	-7		40	27	-13		
	자녀아동기	42	31	-11		48	32	-16		
	자녀청년기	39	31	-8		47	33	-14		
	자녀성인기	34	26	-8		44	31	-13		
가구 월소득	자녀독립기	33	28	-5		44	31	-13		
	300만원 미만	39	30	-9		41	25	-16		
	300~500만원 미만	39	29	-10		44	30	-14		
	500~700만원 미만	40	33	-7		46	34	-9		
	700만원 이상	41	33	-8		50	35	-9		
		없음·모름·무응답	38	32	-6		37	29	-8	

Q. [여가비 지출 동향]: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작년 이맘때(1년 전)와 비교해 어떻게 됐습니까?

Q. [여가비 지출 의향]: 현재 지출(비용)을 고려했을 때, 향후 여가 관련 지출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

주 1) BASE = 만 19세 이상 성인

주 2) '25년 상반기는 6월 2주차 데이터까지 포함한 값임

주 3) 증가%는 5점 척도 중 4점 '증가함(현재)/증가할 것(전망)' + 5점 '크게 증가함(현재)/크게 증가할 것(전망)'의 비율임

주 4) ▲/▽는 95% 신뢰수준에서 전체 대비 유의하게 높거나(▲), 낮음(▽)을 의미함

* 출처: 컨슈머인사이트 여가문화체육 기획조사